

새시작포켓지 6



6월 행사 소식

06.21 : 우송대 유아교육과의 제1회 졸업생 배출

6월 21일 오후 6시경 우송관 506호에서는 우송대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졸업 파티 행사가 열렸다. 방학임에도 모든 학생이 모여 유아교육과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 전 마지막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첫 전통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고생을 함께해온 4학년을 위해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짐을 털어주고 축하해주고자 교수님들과 학생회가 만든 시간이었다. 교수님들의 축하인사 말씀과 후배들이 만든 영상, 그리고 서로에게 해줄 말을 쓰는 롤링페이퍼 순으로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졸업으로 곧 헤어질 친구들과 격려를 하고 추억을 나누다 보니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보였다. 불과 4년 만에 덩뎡하게 헤어짐과 시작을 맞이하는 성숙해진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다.

06.14 : 새내기들의 첫 학기 종강

6월 14일 드디어 기말고사가 끝나고, 종강함으로써 새내기들의 한 학기가 끝나게 되었다. 이번 학기가 끝남으로써 1학년은 더는 새내기라는 호칭이 아닌 재학생으로 불리게 된다. 뭐든지 새로웠던 모습에서 이젠 대학생살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만의 비법도 생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점점 커가고 성숙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한다. 또 마냥 신입생처럼 어리숙한 신입생

처럼 어리숙한 모습보다는 한 학기를 반성하고 다음 학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지난 1학기의 생활은 어땠냐는 질문에 한 학생은 자신이 생각한 자유로운 대학생살에 비해 많은 양의 과제와 짝퉁한 수업일정, 거기에 각종 행사까지 모두를 소화해내기 어려웠지만, 바쁜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에서는 재미있는 추억이었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서 배로 기쁨을 느낀다고 말해주었다.

이제 곧 1학년 첫 학기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결과물인 성적이 나올 예정이다. 누군가는 뿌듯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반성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06.20 : 3학년 보육실습 대비 특강 실시

6월 20일 우송대 유아교육과 3학년들을 대상으로 우송관 504호와 506호에서 박영정 교수님과 강경희 교수님의 동작 교육에 대한 보육실습 특강이 있었다. 이 특강의 주제는 동요를 활용한 동작 수업을 하는 방법이었다.

박영정 교수님은 영아들이 할 수 있는 지시적 동작, 예를 들어 ‘손뼉 짹짹’, ‘왼발을 퐁퐁’ 과 같이 노랫말에 나온 동작을 따라 하는 교육 방법을, 강경희

교수님은 유아들이 할 수 있는 창의적 동작,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교육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이를 배운 3학년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7.11부터 8.7 까지 보육 실습을 다녀올 예정이다.



Out of the Campus : 잉여력 쌓기!

여름이다. 온도는 자꾸만 올라가고 의욕은 떨어진다. 다른 대학교와 달리 우리 학교는 계절학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름을 즐기지도 못한 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뿐인가. 유아교육과가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여러 이유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 대학 생활을 즐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여행을 떠나자. 한 번쯤은 낯선 곳으로 무작정 떠나보는 것이다. 혼자서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도 좋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사실 자체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고, 결국 그것은 새로운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내일로 티켓을 아시는가? 코레일에서는 8월까지 만 25세 이하 내외국민에게 7일간의 기차 여행을 56,500원에 제공하고 있다. 만 18세라고 안심하고 있는 이에게 말하자면,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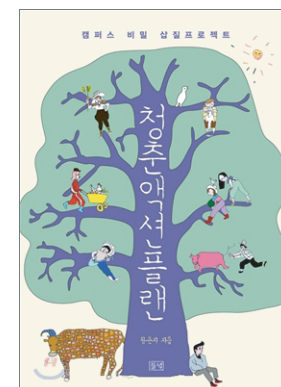


둘째,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자. 문화생활은 대학생들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들을 즐기는 동안 우리는 현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영상이나 공연 속 세상에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산 록 페스티벌,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밀양연극제까지 즐길 거리는 많이 있다.



셋째, 책을 읽자.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꽤 있겠지만,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좋다. 자기 계



발서든 소설이든 장르는 상관없다. 자신이 읽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직도 스펙 쌓는 일이 대학생활 전부라 생각하는가? 지친 그대여, 이제는 잉여력을 쌓아 보라!

아는 것이 힘이다! : 대전 도서관 정복하기



대학교 도서관

대전지역 6개 대학 도서관은 도서관간 협력체제를 통해 각 대학 도서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이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서 1부와, 증명사진, 학생증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하고, 1년 동안 대출실과 열람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대전대학교 : 7권 10일 (방학 중 20일) 대출 가능,
열람실 06:00~24:00 이용 가능.
- 목원대학교 : 7권 10일 (방학 중 14일) 대출 가능,
열람실 05:00~24:00 이용 가능.
- 배재대학교 : 10권 15일 대출 가능,
열람실 06:00~24:00 이용 가능.
- 한남대학교 : 7권 14일 대출 가능,
열람실 24시간 개방.
- 한밭대학교 : 5권 10일 대출 가능,
열람실 24시간 개방.

공공 도서관

대전 공공 도서관은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통합도서관회원 가입한 뒤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여 통합도서관원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 서구어린이도서관 : 3권 14일(오디오북, 교구 1점 포함)대출 가능,
10:00~19:00 이용 가능.
- 갈마도서관 : 5권 14일 대출 가능,
07:00~22:00 이용 가능.
- 둔산도서관 : 3권 14일 대출 가능.
07:00~22:00 이용 가능.
- 한밭도서관 : 3권 14일 대출 가능.
06:00~23:00 이용 가능.
- 자양도서관 : 3권 14일 대출 가능.
09:00~18:00 이용 가능.

책을 빌리지 않고 사고 싶다면 은행동의 계룡문고, 은행문고와 복합터미널의 영풍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방심해선 아니아니 아니되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가까운 계곡이나 워터파크에 가서 뜨거운 여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유치원에서도 유아들을 위해 물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는데, 모기에 물려도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까지 가려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및 사고 대처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을까요?



먼저,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상처부위를 30분 정도 담가두면 독기가 빠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콜라나 식초를 이용하면 독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레에 쏘였을 때는 냉찜질을 하고 우유를 환부에 바르면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목이 쉬며 두드러기가 날 경우는 쇼크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물놀이 중 출혈이 있을 때는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부상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천으로 묶어 지혈합니다. 넘어졌을 때는 우선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이 계속되는지 살펴봅니다. 골절일 경우에는 부목을 대서 부상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바닷가에 사람이 빠졌을 때는 전국 어디서든 119 혹은 1339로 신고하고,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담요를 덮어줍니다. 그다음 평지에 눕힌 후 턱을 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이 멈췄을 때는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아를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에 둔다.

둘째, 음식물을 섭취하며 물놀이하지 않는다.

(껌, 사탕 등) 음식물은 유아가 물놀이 중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셋째, 몸에 딱 맞는 신발과 구멍조끼를 착용한다.

헐렁한 구멍조끼는 안전사고 중 유아가 조끼 밖으로 빠지기 쉬우므로 딱 맞는 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넷째, 준비운동과 휴식을 철저히 한다.



이제 준비가 다 되셨나요? 유아가 다쳤을 때, 안전사고 지식이 없어 엄마한테 전화걸어 물어보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주위 사람을 웃게 하기 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의 체력은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운동합시다!

만드는 사람들.

지도 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생 : 3학년 김진희
 2학년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1학년 박지원 여은솔